

지역 소식통

정읍시, 유흥주점 행정명령

정읍시가 최근 전북도의 유흥 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지역 내 유흥주점 등 93개 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점검에 나섰다.

정읍시는 유흥주점 등 92개소, 클럽 1개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도내에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26일 24시까지 2주 동안 유지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령할 수 있다.

권고 수준인 '생활 속 거리두기'와 달리 업소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즉시 고발하고,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지역 이태원 방문자 코로나 검사 전원 '음성'

부안군보건소(소장 박현자)는 지난 4월 26일 이후 이태원 및 인근지역을 방문한 부안군 거주자 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에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일대를 방문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총 7명이며, 이 중 6명의 원어민 교사가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식당 및 상점을 방문하였고, 방문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했다. 방문자 중 1명은 클럽을 이용하였으나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재난기본소득 현장속으로

유진섭 정읍시장, 지금 첫날 현장찾아 불편사항 점검 지역내 '착한 소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당부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유진섭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첫날 내장상동과 수성동, 신대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유진섭 시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들을 만나며 불편사항과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수령을 위해 방문하는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 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역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기부보다 지역 내 착한 소비를 당부했다. 이날, 시민 대부분은 어려워진 경제회복의 불씨가 될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호응을 보내며 유 시장이 추진하는 다양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조례심의, 온라인구축, 시민홍보, 읍면동 인력지원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의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정읍시민 110,668명에게 1명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소재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7일간) 35,941명(전체 인구대비 32.4%)이 접수했으며, 방문 신청은 14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첫날 내장상동과 수성동, 신대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현장을 둘러보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고창 성내 스테비아 수박이 14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6월까지 본격 출하된다.

"달고 맛있는 고창수박 드셔보세요"

고창 성내스테비아 수박 첫 출하... 전국 최고의 맛 자랑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명품 수박이 본격 출하되면서 본격적인 여름을 알렸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름철 대표 과일인 '고창 성내 스테비아 수박'이 이날 첫 출하를 시작으로 6월까지 본격 출하된다.

올해 고창수박은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7일간) 35,941명(전체 인구대비 32.4%)이 접수했으며, 방문 신청은 14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는다.

고창 '스테비아 수박'은 국화와 다년생 허브식물인 스테비아를 액비로 활용해 당도를 높였고 식이섬유 등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 수박으로 자리매김했다. 스테비아 수박의 당도는 13브릭스(Brix)로 설량의 200배지만 칼로리는 설량의 1%에 불과해 여름철 폭

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6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고 브랜드 파워로 귀농귀촌 농가의 유입과 이들의 조기정착에도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달 15일부터 고창군의 성내면 블랙망고수박과 무장 공음, 아산면에서 재배되고 있는 애플수박도 시장에 나오면서 고창수박을 찾는 이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높을고창 수박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태원 클럽발 숨은 감염자를 찾아라"

정읍시, 자진신고 독려 · 검사 강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김제의 공중보건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읍시가 이태원 클럽이나 주변 음식점 등을 들른 숨은 감염자 찾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클럽 방문자들은 주로 젊은 층으로 활동성이 높고 이동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이 감염된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머무르게 되면 빠르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주 이태원 유흥업소 일대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주 안에 모든 방문자를 찾아내 진단검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내 감염 예방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702건이던 검사 건수가 3일 만에 60건이 늘어나며 13일 총 702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이태원에 소재한 식당과 와인바, 헬스장 등을 방문했다고 밝힌 27명을 검사한 결과 27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4월 24일 이후 이태원 방문에 간 적이 있는 시민에 대해 증상 유

무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검사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태원 일대 방문한 사람은 물론 논현동 등 수도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로 확대했다. 시는 위 기간에 지역 내 주소·연고를 둔 이태원 해당 클럽 방문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검사를 강제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추가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궁항 마리나항만' 개발 첫걸음

부안군이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해양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궁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예정구역에 반영되어 15일 고사림에 따라 마리나항

만 개발·이용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에 포함된 부안군 궁항 예정구역의 마리나항만 수요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마리나항만 기

본계획은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하여 마리나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마리나 산업육성을 통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확충하고, 서비스업을 창출하여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수박 · 복분자, 2020국가브랜드 대상 영예

엄격한 품질관리로 호평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명품 농특산물인 '고창 황토배기 수박'과 '고창 복분자 선연'이 10여년간 국가 대표 브랜드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이코노미스트 주최 '2020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수박과 복분자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창 황토배기 수박은 11년 연속, 복분자 선연은 10년 연속의 대상 수상의 대업이다.

황토배기 수박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와 핵가족 증가에 대응하는 소파(小葉)형태의 수박을 출시하는 등 시장 대응력을 높였다. 고창 복분자 선연은 지리적표시제 등록, 생산이력제 실시 등 엄격한 품질관리 노력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국가브랜드대상'은 해당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경영성과 등을 기준으로 부문별 후보 브랜드를 선정했다. 특히 18일동안 국내 소비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 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등을 항목으로 하는 온라인 소비자 조사와 브랜드 전문가의 엄중심사를 통해 최종선정이 이뤄졌다.

시상식에 참석한 천선미 고창군부군수는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고창 농산물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Energy saving campaign graphic with text: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and a list of 4 energy-saving tips.